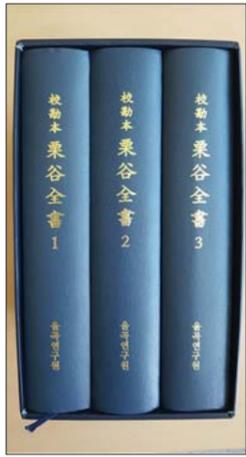


율곡 이이의 모든 것 '재조명'

율곡연구원 '교감본 율곡전서' 간행
전주대 오향녕 교수 연구팀 정보화 성과



율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은 율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율곡전서'를 '교감본 율곡전서(3권 1집)'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했다고 밝혔다.

3권 1집인 이번 '교감본 율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瑋)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보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향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법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뜬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 3년)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다. 1682년(숙종 8년)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 18년)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했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頤)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 '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해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 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해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한편, '교감본 율곡전서'의 간행을 가능케 한 율곡 이이의 자료 집성과 정보화 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향녕 교수 외에, 정석태(부산대), 김경호(전남대), 김태완(숭실대), 이동국(예술의전당), 정재훈(경북대), 정해득(한신대), 이희중·이상돈(서울대), 이경동(고려대), 이인복(경북대) 등, 국내외의 역사, 철학, 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해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감본 율곡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향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正本)가 필요하다"며 "칸토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보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항,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보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율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그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재 원장 또한 "율곡학이라는 대해를 향해하는 데 필수적인 최신 나침반을 새로 마련한 격"이라면서, "교감본 율곡전서가 율곡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율곡연구원(033-642-4982)에서는 율곡학 진흥 차원에서 이번엔 간행된 '교감본 율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진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전주시 '마음치유대책반'의 예술치료 대표기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음을 예술하다'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
단계별 맞춤 예술치료로
코로나 블루 극복 지원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는 예술 매체와 전문 예술치료사의 예술적 경험을 이용한 단계별 맞춤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을 예술하다', 예술치료프로그램은 PHQ-9(우울), GAD-7(불안), PSS-10(스트레스) 검사결과 경증·중증도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1:1 및 집단치료가 제공되며, 매주 화요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설 운영된다.

코로나19 자기격리 대상자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을 줌(ZOOM)'은 우울·불안·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음악, 목소리, 미술 등을 활용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기력과 걱정·불안에서 벗어나 단시간에 기분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진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전주시 '마음치유대책반'의 예술치료 대표기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음치유대책반은 전주시와 유관기관 14개소, 정신의료기관 25개소, 심리상담센터 23개소 등 총 62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회복 지원 체제로 지난 2일 협약 체결이후, 이달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은성 기자

남원여성문화센터, 농식품부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 선정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응 방안 공유

남원시여성문화센터가 농식품부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센터는 매년 100여개 프로그램에 1,5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으나, 수강생들이 편히 쉬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담당 직원의 공모신청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공모로 조경예술가인 정정수 작가의 자문을 받아 센터와 조화로운 옥상 텃밭을 조성, 텃밭을 활용할 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습장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을 위한 감성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은애)는 지난 5일 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0년 전라북도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는 2015년 도내 여성회관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돼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상반기에는 타 시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 하반기에는 공동 협력 사업 발굴과 운영 사례 공유를 위한 지역 순회 협의회의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순회 협의회로 진행했다.

도내 14개 시·군 여성회관 교육 담당 및 담당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지역별 여성회관 현황과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과 추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구글 클래스룸)을 구축하고 43개 과목의 교육 영상을 촬영 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강사와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생계

이유에 센터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시·군 여성회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담당자들이 서로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한 후 각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민의 욕구와 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해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중심이 돼 도내 시·군 여성회관 간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에 직면한 강사들의 수강료를 정상 지급해 교육 강사들의 생활안정 도와와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적극 행정을 펼쳐 참석 기관 모두에 귀감이 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